



화순전대병원-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환경보건센터와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사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환경보건센터는 최근 병원 암센터 교육실에서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정보 교환 및 기술 지원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공동 프로젝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도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환경보건센터장인 박원주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전남도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 광전지사, 무료급식소 모금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사랑밥상 Red Cross 키친’ 무료급식소 개소를 위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더하기’ 모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12월 개소 예정인 ‘사랑밥상 Red Cross 키친’ 무료급식소는 결식가구 감소를 위해 광주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무료급식과 주 1회 공유냉장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더하기’ 모금캠페인은 무료급식소 개소식 전까지 진행된다.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광주나눔터 내 도네이션 월 명패 부착, 급식소 내 집기·비품 기업 로고 각인 등이 제공된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취약계층에 균형잡힌 식사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소를 통한 정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봉사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교통공사, 위험성평가 발표 ‘최우수상’

광주교통공사가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4 광주권역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는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한 모범 사례를 공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로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년 실시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24개 기관이 참여한 1차 지역심사를 거쳐 제조·기타 분야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작업자들이 직접 작업장의 위험을 발견해 보완하는 안전 파수꾼 제도, 외부 전문가들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구 백운2동 7979봉사단, 도배 봉사

광주 남구 백운2동 7979봉사단은 지난 14일 백운2동의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도배·장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환경공단 직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전달한 후원금과 구 운영비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내 도배수련생들과 7979봉사단원들이 함께 도배를 진행했다.

이영석 백운2동 7979봉사단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뜻깊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균 백운2동장은 “광주환경공단 직원분들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및 수련생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백운2동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효령노인복지타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은 15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정신을 되새기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큰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사)코리아문화예술단의 우리춤 공연과 구립꽃들어린이집, 국공립소초어린이집 원아들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배우자 유귀숙 여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하나은행과 굿모닝보청기의 후원으로 물품 전달식도 이어져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됐다. 부대행사로는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와 뷰티케어학과가 참여해 구강검진, 틀니 관리 교육,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에 지역민·동문 후원금 잇따라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지역민과 동문들의 후원금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

1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 의과대학 출신의 동문은 지난 달 12일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한 동문은 “오래 전에 작고한 아내도 전남의대 동문인데 최근 병원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며 “새병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꼭 건립 돼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연구사업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가족들은 “체장암으로 3년간 투병한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 화순전남대병원에 기부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국감 출석 뉴진스 하니 “나오지 않으면 묻혔을 것”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내 괴롭힘 시비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사진)가 “다른 동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15일 하니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 한 팀의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안다.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선배님들, 동기들, 연습생들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하이브) 높은 분을 마주했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서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건 나이가 많으신 분에겐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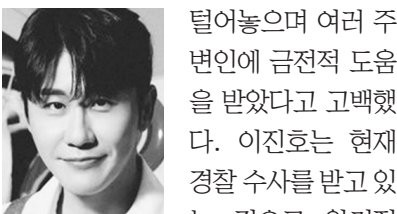
다국적 걸그룹인 뉴진스의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 국적 멤버이다.

이날 증인으로 같은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니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하고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매니저는 그룹 ‘아일릿’ 의전담당으로, 해당 팀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영탁, 이진호에 돈 빌려줬지만 “전액 돌려받아”

가수 영탁(사진)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무 상황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지만, 이를 모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털어놓으며 여러 주변인에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진호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 소셜 미디어에 “영탁은 이진호 씨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진호 씨가 세금 문제로 지난해 7월18일에 영탁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드렸고, 9월12일에 전액을 돌려받았다. 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셔서 사실 관계를 전해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전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 2020년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일부 언론에서는 이진호가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이 10억이 이상이며 방송관계자·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총 채무금액이 23억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예계에서는 영탁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지민, 가수 하성운, 코미디언 이수근 등이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에스파·아이브 등 ‘2024 마마’ 1차 퍼포밍 아티스트 공개

에스파(aespa), 아이브(IVE) 등 K팝 간판 그룹들이 ‘2024 마마어워즈(MAMA AWARDS)’에 출연한다. (사진)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마 어워즈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는데, K팝 시상식이 현지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주최사 CJ ENM은 에스파와 아이브를 비롯해 엔하이픈(ENHYPEN), 아이엔아이(INI), 아일릿(ILLIT), 캣츠아이(KATSEYE), 라이즈(RIIZE),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등 1차 퍼포밍 아티스트 라인업에 포함된 아홉 팀을 공개했다.

오는 22일에는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 무대에 엔하이픈, 아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르며 23일 같은 장소에서 에스파, INI, 제로베이스원이 공연한다.

이중 아일릿과 캣츠아이, 라이즈는 오는 11월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씨어터 무대에 오른다.

시상식은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 유튜브 채널 엠넷 K-팝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마마어워즈는 전날 각 부문 노미네이션 발표와 함께 ‘팬스 초이스(Fans’ Choice)’ 1차 투표를 개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곽지혜 기자**